

문체 실험과 역사쓰기: 「태양신의 황소들」장을 중심으로

이 인 기

『율리시스』의 「태양신의 황소들」(“Oxen of the Sun”)장은 앵글로색슨 시대로부터 빅토리아시대의 산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체를 원용하고 있어서 문체의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산부인과병원 휴게실에 일군의 젊은이들이 모여 떠들썩하게 방담을 나누다 술집으로 나간다는 단순한 사건을 시대별, 작가별로 달라지는 문체를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사건보다는 기법이 현란하게 돋보이는 장인 것이다. 그런데, 기법의 활용에 관해서는 조이스가 친구인 버전(Frank Budgen)에게 보낸 편지글(Letters I, 139-40)을 근거로 문체의 변천을 태아의 성장 혹은 동물 진화의 과정과 양립시키려는 비평적 견해들이 주로 인용되어왔다. 하지만 조이스가 인위적으로 배열한 문체의 시대별 변천을 태아의 자연발생적 성장과정과 양립시키려는 시도는 그릇된 유추의 오류를 범한 듯이 보인다. 게다가 집필과정 중의 구상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집필이 끝난 뒤의 결과물에서는 달라진 요소들이 있어서 그 편지글만으로 문체의 실험을 해명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Peake 250).

그러면 조이스가 다양한 문체를 원용한 의도는 무엇일까? 문체의 실험을 형식주의적 낯설게 하기의 방안으로 보면 그러한 기법의 선양이 삶의 현실을 가리게

되고, 문체의 다양성으로 의사소통의 불능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문체가 다양하게 바뀌는 가운데에도 방담의 현장에 대한 서술이 일관된 점을 해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 장에서 다양한 문체를 활용하여 현장의 상황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할 때 조이스가 역사쓰기의 과정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정해볼 수 있다. 역사란 지리(geography)와 서술로 구성되므로 (Heller 2)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방담 현장을 역사상의 시기를 대변하는 문체들로 서술하는 과정은 역사쓰기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역사가가 그러하듯이 다양한 문체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사용하며, 변형된 문체 속에 삶의 반복과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함축하고, 과거의 사건들을 현재의 관점으로 비판하는 점 등도 그러한 추정을 보조해준다. 물론 서술자가 각각의 개성적인 문체들을 회화화하거나, 대상을 시대착오적으로 적용하고 상이한 사건을 중첩하여 제시하기도 해서 사건의 실체를 포착하려는 역사쓰기의 과정과는 양립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역사쓰기도 모호한 실체와의 긴장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역사적인 요소들조차 역사쓰기의 문제를 역추정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이스가 「태양신의 황소들」장에서 실행한 문체의 실험이 역사쓰기의 문제를 사실상 제기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장은 시대별로 다양한 문체들을 원용하고 있는데다 일찍이 「네스토르」(“Nestor”)장에서도 천착하였던 역사의 기록과 사건의 실제 사이의 긴장관계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역사쓰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법이 사건보다 두드러지는 장이므로 아일랜드 역사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 논지의 한계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역사주의적 접근이 가능한 요소는 황소(bull)와 관련된 문체의 회화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쓰기의 문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서술자와 서술 대상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I.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스티븐은 오전에 수업을 하던 중 상념에 잠기며 역사가 “기억의 딸들에 의해

구성”(U 2.7)되고 역사쓰기는 결국 “바람을 짜는”(U 2.53)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역사가가 선택한 사건이 기록의 축쇄를 차게 되지만 그것이 기억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단 기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건의 또 다른 가능성이 삭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기록되었다든지 기록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의문은 역사쓰기를 “바람을 짜듯” 실체를 포착할 수 없는 작업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한다.

역사쓰기란 원래 시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지점으로부터 되돌아” 보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시공간상의 격차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마치 시간의 흔적 속으로 사라져버린 모세의 무덤을 찾으려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의 무덤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경로로 토벳[지옥]으로 갈지 에덴빌[낙원]로 갈지 모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존재의 본질을 어느 곳에서 가져 왔는지 멀리 있는 지점으로부터 되돌아 볼 때 모든 것은 숨어버린다. (U 14.397-400)

이처럼 역사쓰기는 “모든 것이 숨어버리는” 상황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기록으로 남게 된 역사는 결국 역사가의 판단에 따라 선택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태양신의 황소들」장은 이러한 지점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우선 역사가의 판단은 역사가의 시각, 즉, 역사관을 반영한다. 역사가 개인의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그의 역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역사쓰기에는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조작이거나 상상적 조작의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과정이 개입하므로(Barthes 138) 그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당파적인 시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근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가가 다양한 시각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태양신의 황소들」장이 산부인과 병원 휴게실에서의 방담이라는 단일한 사건을 다양한 문체로 제시했다는 것은 역사쓰기에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체란 “현실에 대한 등가물”(Atherton 314)이므로 다양한 문체가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현실의 시각이 적용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이 사건의 실체를 보다 근사치로 포착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문체가 달라지면서 레오폴드는 나그네, 레오폴드 경, 블룸 씨, 광고모

집자 블룸 씨, 위로자, 철학자 등으로 이름이 달라지고, 스티븐은 교활한 중세학자, 탕자, 위협적인 설교자, 순례자, 풍자가, 무신론적 회의론자, 무정부주의자, 보헤미안적 학생 등으로 다르게 제시되듯이 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은 결국 한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지시하므로 그 대상의 실체에 근접하는 통로가 된다. 즉, 다양한 문체를 적용하면서 젊은이들의 방담은 서로 상관없는 잡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조국과 교회와 가정의 현실을 부각시키는 현장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다양한 타자들이 나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그 다양성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통찰이 보다 정확해지는 것과 같다.

일상은 날마다 이어지는 많은 날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걷는다, 강도들, 귀신들, 거인들, 노인들, 젊은이들, 아녀자들, 과부들, 친구들(brothers-in-love)을 만나지만 언제나 만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U 9.1044-46)

그리고 문체 발달의 최종 단계에서 속어의 난장판이 벌어지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어떤 단일하고 일관된 언어 사용으로는 실체를 재현할 수가 없다. 물론 속어의 난장판은 술기운에 절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앞서 제시된 문체들이 시대별로 다양하기는 해도 정선된 영어의 사용이라는 긴장감이 통일적으로 조성되어 온 것에 비하면 마치 바벨탑이 붕괴하듯이 갑자기 그 긴장감이 와해되므로 그 상황은 정선된, 혹은 단일한 언어만으로는 실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피진 영어, 흑인 영어, 런던 방언, 아일랜드어, 뉴욕 술집 속어, 띄엄띄엄 줄렬한 글귀들의 끔찍한 난장판”(Letters I, 140)은 분명히 “명징한 언어, 평범한 문법, 직접적인 플롯을 사용해서 타당하게 제시될 수 없는”(Letters III, 146)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속어가 대변하는 다양한 욕망의 분출마저도 아우를 수 있을 때 실체의 재현은 타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역사가의 판단은 역사쓰기 과정상 개재하는 편집행위와도 관련된다. 사실상 역사는 역사쓰기의 과정 중에 사건을 선택하고 재배열하는 등의 편집행위를 한다. 역사는 아무리 객관적이라 해도 사건을 역사가가 의도하는 의미화의 체계로 재배열하여 형식적인 결합을 부여한 결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White 6n-7). 물론 이는 사건의 실체를 전달하는 효과를 위한 것이며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활용된다. 「태양신의 황소들」장에서 문체의 회화

화가 시대를 거슬러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이 아니라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에서 종결되는 것이라든지 쿠퍼(William Cowper, 1731-1800)의 글에서 나온 “약간 야릇한 미색남”(some unaccountable muskin, *U* 14.676)이라는 어구가 스틸-애디슨-스틴(Richard Steele, 1672-1729; Joseph Addison, 1672-1719; Laurence Sterne, 1713-1768)의 문체를 흉내낸 단락에서 사용되고, 스몰렛(Tobias Smollett, 1721-1771)의 시대에 속하는 “단발머리” 스타일의 가발(cut bob, *U* 14.497)이 100여년 전인 펨스(Samuel Pepys, 1633-1703)의 문체 속에서 언급된 것 등은 시대를 엄정히 구별하지 않은 “부주의한”(Atherton 319) 조처라고 간주할 수 있지만, 역사의 세목들에 대한 일람 작성을 어렵게 하기 위해 조이스가 고의로 역배치한 혐의를 받기도 한다(Atherton 323). 이는 조이스에게 역사쓰기가 사건의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며 “바람을 찌는” 행위로서 사건의 실체를 단순한 시간 배열에서 추구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도 조이스는 “두건을 목까지 두른 채”(swire ywimpled, *U* 14.81)라는 어구처럼 ‘목’을 뜻하는 앵글로색슨어[swire]와 초서(Geoffrey Chaucer) 시대의 중세 영어[ywimpled]를 교합하여 쓰거나 엘리자베스조의 단어들[mo, prudenter, quod he, *U* 14.278-81]과 중세 단어들[aventried, Agenbuyer, *U* 14.295]로 구별되는 단어를 한 단락에서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시대착오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

역사가라면 이처럼 고의적인 시대착오를 감행하지는 않겠지만 조이스가 특정 시대성을 역배치하거나 교합한 것은 역사쓰기의 과정상 사건의 재배열이 의도하는 효과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디포(Daniel Defoe)로부터 빌린 발췌문들은 조이스가 회화화한 글들과 비교할 때 현대 영어처럼 느껴지므로 문체의 발달을 입증하려는 견지에서 보면 칼라일의 문체 뒤에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성 연대순으로 배열됨으로써 문체의 발달에 역행한 인상을 준다. 게다가 디포의 글들 속에서도 역시 이미 그 당시에 사어가 된 단어들[Paul’s men, flatcaps, *U* 14.537; sackpossets, *U* 14.540]과 심지어 빅토리아조의 단어들[bookies, *U* 14.537; welsher, *U* 14.559]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열과 언어의 사용은 디포의 “시간을 초월하는” 문체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Atherton 325). 이처럼 역사쓰기는 사건의 시간상 배열을 넘어 사건의 실체를 전달하기 위한 재배열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편집행위 자체가 고의적이지 않은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역사쓰기에서 유의해야 할 요소이다. 스티븐 핸드(Stephen Hand)가 전보배달 소년을 중간에 만나 경마 정보에 관한 전보를 읽어보고 그 소년에게 4펜스를 준 뒤 돌려보낸 사건을 보고서 길버트(Stuart Gilbert)가 1932년 오디세이 출판사 판 『올리시스』에서 스티븐과 핸드 사이에 마침표를 찍어 넣는 바람에 후속 판본들이 그의 사례를 모방함으로써 위 사건의 개요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 오판은 후일 독일인 번역가 고여트(Georg Goyert)에게 위 사건을 설명하는 조이스의 편지가 출간됨으로써 교정되었다(Atherton 335). 따라서 역사쓰기에 있어 역사가의 편집행위는 자의적인 판단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의 필요성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가의 주체적인 판단과 편집행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 역사쓰기는 궁극적으로 “수수께끼 같은 문장”(U 2.87)을 쓰는 것이고 사건의 실체는 “명시되지 않은 기의와 다르지 않은”(Barthes 139) 것이 되고 만다. 즉, 사건의 진실보다 서술자의 진실이 문제가 되며 사건의 실체는 서술자의 시각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들 사이의 관계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Hawkes 7). 그렇다면 실체에 대한 근사치를 추구하는 노력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며, 사건들 간의 관계를 천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소용 없다는 것은 아니다. 20세기적 관점은 그 시대의 특성을 지닌다; 그 자체도 진리를 독점하지는 않지만,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다. 우리가 진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은 많은 다른 각도에서 많은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Peake 262)

따라서 「태양신의 황소들」장의 다양한 문체는 젊은이들의 방담 가운데 제기된 출산을 비롯한 더블린의 현실 문제와 그 역사적 연원에 대해 “되돌아 볼 때 모든 것이 숨어버린”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II. 발전보다는 지속의 개념에 입각한다

디지(Deasy) 교장이 스티븐과 논쟁을 할 때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의 위대한 목표, 즉 신을 구현하는 쪽으로 움직인다”(U 2.380-81)는 목적론적 사관을 피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궁극적인 발전의 과정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역사는 진보하고 결국 신에게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사관은 역사를 단선적인 과정으로 전체하며 계국주의적 세계관에 복무하게 된다. 계국주의적으로 이해하면 신은 집중된 권력의 총화이므로 진보 혹은 발전의 이데올로기만이 그 정치적 의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 교장은 친영적인 성향의 인물이다.

이러한 역사발전론적 시각은 「태양신의 황소들」장에 관한 조이스의 편지에서서도 암시된 바 있다.

이러한 [문체의] 진행은 낮의 앞선 몇몇 사건들과 각각 세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게다가 배아(胚兒) 발달의 자연스러운 단계와 전체적인 동물 진화의 시기 와도 연관되어 있다. ... 불륨은 정자이고 그 병원은 자궁이며 간호사는 난자이고 스티븐은 배아이다. (*Letters I*, 140)

편지는 배아의 발달과 진화가 문체들의 전개와 관련하여 “발달의 9단계”(Letters III, 16)를 반영하고 있어서 역사쓰기의 차원에서 보자면 역사발전론을 암시하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역사발전론적 시각이라면 문체 전개의 마지막 단계는 아이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발달 단계의 완결적, 혹은 충실한 결말이 형상화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속어의 난장판이 전개되고 문체 전개의 단계마다 품고 있던 문체상 긴장마저도 와해되어버린다. 물론 호머 신화와의 평행을 고려하여 태양신의 진노가 발휘된 결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이 역사발전론적 시각을 추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결말에 따르면 발전보다는 진행 혹은 전개의 개념이 역사의 과정을 보다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인상을 준다. 역사는 분명 상대적 충실도가 높아가는 과정에 있기보다 어느 경우에는 반복되거나 중첩되기도 하면서 진행되어갈 뿐이라는 것이다.

조이스의 편지에 의거하더라도 발전의 개념이 부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하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 그리고 배아의 형성은 일견 발전의 과정을 암시할 수 있으나, 그 각각이 블룸, 간호사, 스티븐 등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과 결부됨으로써 발전의 개념을 도출할 유비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다. 블룸과 간호사의 어떤 속성이 결합하여 스티븐적 속성을 배태하였는가? 블룸과 스티븐의 성격상 연속성은 인정하더라도 블룸이 스티븐적 배아에 대해서 정자적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가 정신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 배아를 형성시킬 원인으로서는 정자적 존재를 거론하더라도 블룸이 취하게 될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배아 생성의 원인으로서는 배아를 보호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리고 난자로서의 간호사의 존재는 건강부회일 수 있다. 그녀가 임신했을 가능성(Madam, when comes the storkbird for thee? U 14.1405-6)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가 그녀에게 난자의 역할을 하게 했다면 그 역할은 출산 중인 퓨어포이(Purefoy) 부인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그 간호사가 결국 스티븐을 병원 밖으로 내보냈으므로 그 행위는 배아를 자궁 밖으로 내몰아 결국 유산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체의 전개를 배아의 발달 혹은 동물 진화와 관련시키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유비상 비약이 개입한다. 오히려 조이스가 발생과 진화의 틀을 집필 중에 포기한 듯이 보인다(Peake 250-51)는 지적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가슴뼈(breastbone, U 14.85)라는 단어는 배아 발달의 비유를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가슴뼈는 배아가 7개월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생성되므로 그것과 관련된 문체는 문체의 시대별 배열에서 초반에 언급될 수 없는 것이다(Atherton 318). 따라서 편지에서 언급한 진행(progression)의 의미는 진보 혹은 향상, 발달의 개념으로 쓴 정황이 있기는 해도 문체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연속, 혹은 나열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배열된 문체들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도 해서 발전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술집 장면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최초로 제시된 문체의 변형을 이해하기만큼 난해하다. 스티븐이 술을 사는 장면에서 누군가 시간을 묻고 벌에 쏘인 블룸의 이야기에 몰리에 관한 말들이 오가고 주문을 재촉하며 몰리를 육감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감자 부적을 언급하고 누군가 덕슨에게 인사하고 ... 스윈번(Swinburne)의 시구를 읊는데 멀리건은 스티븐을 공격해댄다(U 14.1465-88). 술집의 번잡함과 난장판을 그대로 옮겨놓아서 누가 말

했는지 표시되지도 않고 끝말이 끊어지는가 하면 발음이 명확하지도 않다. “공[정적인] 사실”(Pos[itive] fact, U 14.1472-3)이라는 말을 예로 들더라도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그 대화의 맥락과 발화자를 지목할 수 없는 상황이 지면에 전개되고 있어서 세심한 분석과 해석(Turner 83-111)이 병기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태양신의 황소들」장에 제일 먼저 배치된 문체는 라틴 어문을 영어 어법과 구문에 맞추지 않고 영어로 축자번역한데다 문장의 요소들을 누적적으로 첨부함으로써 구조가 난해한 만연체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의 예지는,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가장 유리하게 주장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그다지 통찰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인즉슨, 사람들이, 다른 상황이 꼭 같다면, 한 민족의 번역은 장대한 외면보다는 계속적인 자손 번창—그것이 없으면 악의 근원을 구성하지만 다행스럽게 존재할 때 편만한 자연의 무구한 은사의 확실한 증표를 구성하는 그 자손 번창—을 도모한 증거가 얼마나 진척되어 왔는지의 척도에 의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확증된다고 일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주장하는데도, 교의에 가장 해박하고 확실히 그런 고로 그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고상한 정신의 장식이 항상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U 14.7-17)

이 하나의 문장은 사실상 현대 영어의 문법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어서 번역과정의 편집이 없으면 난해하기가 속어의 난장판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조이스가 지칭한 대로 “수정되지 않은 난자의 상태”(Letters I, 139)를 반영한 문체와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해당하는 온갖 속어의 난장판은 영어의 문법을 벗어난 특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대가 전개되면서도 가독성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발전이라는 개념은 해명되지 않는다.

사실 이 같은 비교는 다소 미묘하기는 하지만, 조이스가 「태양신의 황소들」장의 첫 문체와 마지막 문체를 난해하게 제시한 데에는 삶과 역사 속에 전개되는 반복적 일치를 제시하려는 의도가 개입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의 종결과 궁극은 그 출발 혹은 기원과도 어느 정도 혹은 방법상으로 일치하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탄생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며 종국을 향해 퇴행적 변신에 의해 감소와 제거를 획득해가는 다층적 일치는 자연에 부합하며 해 아래 사는 우리 존재에게도 부합하는 것이다. (U 14.387-92)

실제로 역사도 스스로를 반복하므로(*U* 13.1093) 발전의 개념으로 목적론적 사관만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에올로스」(“Aeolus”) 장에서는 맥휴(MacHugh) 교수가 테일러(John F. Taylor)의 연설을 암송하는데(*U* 7.828-69) 그 연설의 내용은 압제자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해낸 모세가 물질적 안일의 유혹을 떨치고 시내산 정상에서 영원자와 대화하며 십계명을 안출해내어 정신적 승리를 거두었음을 강조한다. 물론,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장식에 해당하지만, 민족의 지도자 파넬(Charles Stuart Parnell)은 분명 모세에 비견되는 지도자였고 그의 행적은 모세의 위업에 비길 만하였으므로 이 연설은 역사가 “다른 점을 지니면서 스스로를 반복한”(U 16.1525-26) 사례를 부각시켜주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로마와의 관계에서도 설사약 장수로 지칭되는 영국(영국인 헤인즈의 아버지가 줄루족에게 설사약을 팔았다, *U* 1.21-22)과 아일랜드의 관계가 비유상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억하라, 에린이여, 너의 세대들과 지나간 나날들을, 어찌하여 너는 나와 내 말을 업수이 여겨 낫선 자를 내 문으로 끌어들여 내 면전에서 음행을 행하고는 여수름처럼 살이 썩 발로 차는고. 이런 고로 너는 나의 빛에 대해 범죄하였으며 너의 주인인 나를 종들의 노예로 만들었도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밀리족이여: 나를 잊지말지니, 오 밀레시아족이여. 왜 너는 이 가증스런 일을 내 앞에서 행하여 설사약 장수 때문에 나를 걷어차고 너의 딸들이 호사스럽게 동침한 미개한 말을 쓰는 로마인들과 인도인들에게 나를 부인하는고? (*U* 14.367-75)

그러므로 역사를 발전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역사의 행위자[실행자]들이 반드시 말씀[Word]의 성격과 기원을 의문시하게 되어 있는”(Druff 308) 조건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역사의 실행자들은 기존의 체제[Word]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데 매번 파괴되는 그 체제는 역사의 발전을 순차적으로 유지해 온 토대가 되는가? 오히려 그 체제는 생성과 파괴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 역사가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할 따름이 아닌가? 문체 배열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속어의 난장판에서 보듯이 그러한 파괴 혹은 해체는 새로운 생성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일관된 발전을 해명하지는 않는다. 그 난장판은 일관된 태아의 발달을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영어 자체에 대한 조이스의 의식적 공격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체의 발달로 역사의 발전을 형상화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각 시대의 문체

는 그 시대의 환경에 적절한 의사소통 수준을 최적화한 것이므로 문체의 시대적 전개를 역사의 발전 양상으로 규정할 수만은 없다.

III. 현재를 위한 것이다

조이스가 「태양신의 황소들」장에서 살루스트(Sallust)와 타키투스(Tacitus)의 라틴어식 문체를 고집스럽게 구사함으로써(U 14.7-17) 의도하는 효과는 과거의 과거성을 표명하는 것일 수 있다. 기록된 글 자체가 과거의 어법을 따르므로 과거성이 물질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과거성은 역사쓰기의 기본 전제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과거에 그 민족에 의해서 탁월하게 시작된 일이 미래에 비슷한 탁월성을 넘어서 성취되지 못할까 염려하며”(U 14.23-25) 미래에 대한 역사의 효용성을 거론하지만 과거는 과거로서 인식하는 전제에서 현재로 참조되는 것일 뿐이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Carr 30)로 보는 입장에서 결국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과거성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쓰기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은 현재이다. 과거의 실수를 미래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시점은 현재이며, 이는 그 역사를 배우는 현재에 어떤 시각과 입장으로 과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를 바라보는 현재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태양신의 황소들」장에서 과거의 문체를 변형하거나 희화화한 것도 결국 과거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물론 문체의 모방이나 희화화를 과장법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지만(Peake 261) 예를 들어, 크로터즈(Crotthers of Alba Longa, U 14.233)의 이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합만을 보더라도 비판적 의도가 표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Maley 213-14). 크로터즈는 건달(rottters)을 연상시키고 크로트(Crott)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똥, 찌꺼기의 뜻이 있는 것이다. 조이스도 그를 “약간 허풍스런 녀석”(U 14.738-39)으로 칭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변형된 문체 속에 실린 젊은이들의 방담 가운데는 더블린 사회의 과거와 현 상황에 대한 비판적 지적들이 실제로 담겨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비판받는 사안은 부권부재의 현상인데, 이 현상은 상징적으로 부권의 상실에 동반하는 탕아의 출현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일랜드 역사에

있어서 정치, 종교, 가정의 전 영역에 걸친 만성적인 증세를 대변하고 있다.

이제 자신의 몸으로부터 난 남자 아이를 상속자로 갖지 못한 레오폴드경은 자기 친구의 아들인 그[스티븐]를 바라보고, 지나가버린 자신의 행복 때문에 슬픔에 갇혀 대단히 고결한 용기를 지녔던 아들이 (모두가 실제 재능을 지닌 것으로 인정했으므로) 떠난 것처럼 슬펐으나, 그는 또한 그것에 못지않은 심정으로 젊은 스티븐에 대해 안타까워했는데 웬고하니 그는 저 불량배들과 난폭하게 지내며 자신의 자질을 창부들과 함께 죽였기 때문이다. (U 14.271-76)

집안에서 부권이 상실된 현상은 사회적으로도 교권이 실추되고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게 된 현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스티븐의 아버지인 사이먼처럼 집안의 살림에 무감하며 술집에서 소일하는 아버지들, 종교적 헌신보다 물질적이거나 정치적 이익을 탐하는 사제들, 과거로부터 거듭되어 온 저항의 실패와 정치 지도자들의 분열 등은 현재 민족의 지도자 파넬이 부재한 상황과 결부되어 부권부재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당아의 존재는 그러한 부권부재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사제들은 더블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물질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익을 종교적 헌신보다 우선하는 존재들로 비판받고 있다. 방담 중에 가톨릭 교의에 관한 질문을 받은 블룸은 “어머니인 교회로서는 한방에 마찬가지로 탄생봉납금과 사망봉납금을 다 받으므로 좋은 일이지”(U 14.257-58)라며 분만 도중에 산모와 아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제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중을 표명한다. 그리고 속어의 난장판 속에 등장하는 부흥사의 말씀 선포는 사실상 사제들의 물질주의 선언에 해당한다.

엘리아께서 오신다! 양의 피로 씻음 받고서. 이리 오라, 너 포도주 김새는 녀석, 독한 술로 벌개진 놈, 마구잡이로 마셔대는 놈들아! 이리 오라, 너 개지랄치는 놈, 황소 모가지에 풍뎡이 이마뺨에, 돼지 목살에, 땅콩 대가리에, 족제비 눈탱이 허세꾼들, 목소리만 큰 놈들, 쓰잘데 없는 놈들아! 너네 세 번 달여낸 파렴치한 놈들아! 알렉산더 제이 크라이스트 도워, 이게 내 이름이야.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이 지구의 거의 절반에서 영광중에 오른 이름이지. 신이란 서푼짜리 동네잔치가 아니라구. 너네들한테 말하는데, 신은 정확해서 아주 멋진 사업 테마이기도 해. 최고로 수치맞아 그러니 그 점은 잊지말라구. 왕인 예수께 구원이 있다고 외쳐 봐. 너 죄인아, 전능하신 신을 울

귀머거리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거야. 프라프! 적당히는 안 되지. 신은, 이 친구야, 편치 쉬운 기침약을 자네에게 주려고 뒤 호주머니에 넣고 있거든. 마셔보든가. (U 14.1580-91)

종교가 “편치 쉬운 기침약”처럼 날조된 약이라면 부흥사의 포스터는 상품을 복음처럼 전하는 통로일 것이다. 이처럼 신은 없고 다만 사업만 있을 뿐이니 도위는 신의 이익을 벌어들이게 될 것이다(Osteen 125).

스티븐이 “변절자라고도 그가 말했던 그리스도의 대리자”(U 14.280-81)를 언급하며 건배를 제의했을 때, 구체적으로 변절자(vicar of Bray)는 교황령을 점유한 이탈리아 정부에 항의하면서도 동시에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교황 비오 10세(Pius X, 1835-1914)를 지칭하지만, 신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 하거나 파넬의 몰락과 같은 역사상 결정적인 사건에서 변절했던 사제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일랜드의 상황이다.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문체를 흉내낸 단락에서는 상기와 같은 속성의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결합하여 식민 상황을 고착시키고 아일랜드 사람들을 그 체제에 복무하게 만든 역사적 질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당신 말을 이해하오, 디슨씨가 말한다. 그 황소는 그들 모두 가운데 가장 과감한 목축업자인 농부 니콜라스[교황 아드리안 4세]가 에메랄드 반지를 코에 끼워서 우리 섬으로 보낸 바로 그 황소지요. 그 말 맞소, 탁자 너머 빈센트씨가 말한다, 게다가 정곡을 찢렸어, 그가 말한다, 그놈보다 더 똥똥하고 비대한 황소가 토끼풀에다 똥을 눈 적은 없지, 그가 말한다. 그놈은 빨이 화려한데 금색 천으로 된 외투를 두르고 달콤한 하얀 숨결을 콧구멍으로 내뿜어서 우리 섬의 여자들이 밀가루 반죽과 밀방망이를 던져두고 그를 쫓아다니며 데이지 꽃 화환으로 그를 멋지게 꾸며 주었지. 그건 무얼 얻으려는 건지, 디슨씨가 말한다, 그가 오기 전에, 고자인 농부 니콜라스[교황 니콜라스 2세]는 자기와 진배없는 의사단에 시켜서 그를 적절히 고자로 만들었는데 … 처녀, 아줌마, 수녀원장, 과부는 오늘날까지도 확인하기를, 멋지고 강건한 젊은 장정과 온 아일랜드의 네 들판에서 함께 눕기보다 어느 때든지 어두운 외양간[고해소]에서 그의 귀에 속삭이거나 그의 길고 성스러운 혀가 목덜미를 한 번 훑아주는 것을 더 고대한다지. (U 14.581-99)

이들의 대화는 유일한 영국인 교황이었던 아드리안 4세(Nicholas Breakspear)가

교서(bull)를 내려 아일랜드 침공의 빌미를 찾고 있던 헨리 2세에게 아일랜드 통치권을 부여한 사건과 관련있다. 당시 교황은 헨리 2세에게 통치권 인정의 증표로서 에메랄드가 박힌 반지를 하사하였다. 에메랄드와 토끼풀이 아일랜드를 상징하므로 그 상징이 사용된 사안을 보면 교황과 영국이 아일랜드를 침탈했음에 분명하게 아일랜드 여자들은 그를 추종하고 있다. 여기서 여자들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는 것은 당시 민족주의가 역사를 질곡에 빠뜨린 주역으로서 여성을 지목하여 희생양으로 삼았던 상황을 지시한다. 실제로 맥머러(Dermod MacMurrough) 당시의 더보길라(Devorgilla, U 2.393-94)와 파넬 당시의 오셰이(Kitty O'Shea, U 2.394)는 이브(U 2.390)와 헬렌(U 2.391-92)처럼 역사의 죄를 뒤집어썼다: “정조를 버린 아내, 시티즌이 말한다. 그것이 우리 모든 불행의 원인이야”(U 12.1163-64). 하지만 영국이나 교황이 구사하는 남성적 권력에 비하자면 갖은 저항의 실패로 아일랜드의 남성성이 소멸한 상황에서는 그들이 영국을 대하는 자세가 여성적 순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대화는 시종일관 여자들의 책임을 거론한다. 이처럼 왜곡된 정보가 반복 재생산되면 그 정보의 왜곡은 정식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티븐이 술을 따르며 내뱉었던 “영국 도자기 상점에 아일랜드 황소 풀”(U 14.581)은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예견한 것인양 보인다. 그의 말은 ‘터무니 없다’는 뜻인데, 영국이 아일랜드를 침탈한 과정도 터무니없지만 역사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것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bull은 황소로 지칭되거나 교황의 교서를 암시하는데,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보면 bull 자체가 ‘거짓말, 허언’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젊은이들의 방담도 bull session이다. 어쨌든 bull을 활용한 말장난이 아일랜드 역사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을 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비판은 인물들의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를 바라보았을 때 제기된 것이고 현재 시점의 가정, 교회, 정치계가 직면한 문제를 적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이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며 역사가 현재를 위한 것인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는 “그것의 예상되는 관객들이 실제적인 현존재가 되기 전에 아마도 현재로서 존재하기를 그치게 되었을 과거”(U 17.1144-45)이므로 예상되는[현재의] 관객들이 이미 과거인 사건[현재로서 존재하기를 그치게 되었을 과거]을 바라보며 실제적인 현존재의 상황을 투영하게 될 것이다. 역사쓰기는 이처럼 과거를 통해 현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인 것이다. 물론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미래의 교훈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으므로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추론은 검증되지 않는 귀납의 문제에 해당한다. 조이스도 현재로부터 과거의 과거성을 바라보며 현재를 이해하는 것 이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이를 통해 모든 미래가 과거로 던져지니까”(U 9.89).

IV. 맺는 말

살펴보았듯이, 조이스가 「태양신의 황소들」장의 문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역사쓰기의 요소들은 역사가 다양한 시각의 검토를 통과해야 하며 발전이라기보다 반복 혹은 전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재정립을 위해 과거를 살펴보는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조이스는 역사쓰기의 지향점을 암시한 것이기도 한데, “여자의 자궁 속에서 말은 육신이 되지만, 사라지는 모든 육체는 창조자의 정신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말이 된다. 이것이 후기 창조이다”(U 14.292-94)라는 지적을 고려한다면, 신이 인간으로 육화되어 예수가 되었듯이, 삶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도 여자의 자궁에 해당하는 창조자의 정신에 의해서 기록이 될 때 그 흔적은 육화되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므로 역사쓰기는 제2의 창조에 해당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이렇게 잡담하듯 모든 걸 포괄하는 가장 잡다한 연대기”(U 14.1412) 혹은 “씨잘데우스 없이 읽기 힘든 이클레스 인명록”(his usslessly unreadable Blue Book of Eccles, FW 179.26-27)일 수 있지만, 역사는 인간 실존의 실체를 가늠하게 하여 시간의 과정 속에서 자기향상을 비판적으로 모색하게 하는 현상이 된다.

(명지대)

인용문헌

- Atherton, J. S. "The Oxen of the Sun."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 Clive Hart and David Hay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4.
- Barthes, Roland. *The Rustle of Language*. Trans. Richard Howard.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6.
- Carr, E. H. *What Is Histor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 Druff, Jr., James H. "History vs. the Word: The Metaphor of Childbirth in Stephen's Aesthetics." *JJQ* 19.3 (1982): 303-14.
- Hawkes, Terence. *Structuralism and Semiotics*. 2nd ed.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3.
- Heller, Agnes. *A Theory of Modernity*. Malden: Blackwell, 1999.
- Joyce, James.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New York: The Viking P, 1966.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III. E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 1966.
- _____. *Ulysses* (1922). Ed. Hans Walter Gabler. New York: Random House, 1986.
- _____. *Finnegans Wake* (1939).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 Maley, Willy. "'Kilt by kelt shell kithagain with kinagain': Joyce and Scotland." *Semicolonial Joyce*. Ed. Derek Attridge and Marjorie Howes. Cambridge: Cambridge UP, 2000. 201-18.
- Osteen, Mark. *The Economy of Ulysses: Making Both Ends Meet*. New York: Syracuse UP, 1995.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Turner, John Noel. "A Commentary on the Closing of 'Oxen of the Sun.'" *JJQ* 35.1 (1997): 83-111.
- White, Hayden.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73.

Abstract**Joyce's Experiments with Prose Styles and History Writing
in the Episode of "Oxen of the Sun"**

Ihnkey Lee

This paper proposes that in the episode of "Oxen of the Sun," Joyce's experiments with prose styles suggest how to write history. First, he uses various imitations and parodies of styles to describe a bull session, which implies we can get to the truth of history by "looking at it from many different angles and in many different lights." Various points of view will help the history writer overcome the ideological or imaginary elaborations he or she otherwise would be subject to. Second, Joyce suggests history is written in terms of progression or succession, not development or growth. Not going by his letter to Budgen, Joyce sometimes reverses chronology of styles and repeats some words or phrases irrespective of their chronological sequence. Additionally, into the final stage of stylistic "development" emerges the chaos of modern "marketplace" speech instead of full growth of post-Carlyle style. Such reversals, repetitions and disintegrations do not support linear development of history. Third, during the bull session young Irish people criticise their historical past related to their home, religion, and politics. To criticise historical past is to see/write the history in the light of the present. As history i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the present is the key to the writing of history. To conclude, it is his ideas of history writing that Joyce suggests through "a museum of literary styles."

■ **Key words**: prose style, various angles, progression, development, the present, history writing

(산문 문체, 다양한 시각, 전개, 발달, 현재, 역사쓰기)

논문접수: 2010년 5월 15일

논문심사: 2010년 6월 2일

게재확정: 2010년 6월 13일